

I. 사사기의 제목 (Title of the Book)

사사기는 퇴보와 실패의 책, 반복되는 범죄의 책, 불완전한 승리의 책이다.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죽음 이후 여호수아에게 이어진 신앙의 전통과 승리의 시대이었다. 하지만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 후계자가 없이 각 지파 중심으로, 각 개인 중심으로 사건과 일을 처리하던 시대가 되었다. 히브리 어 성경은 사사기를 쇼페팀(사사들, 재판관들, 통치자들, 최고지도자들)이라고 불렀다. 70인역에서는 크리타이 라고 불렀다.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 사무엘까지 사사들이 구원주 역할을 감당했다. 그들은 정치, 경제, 전쟁, 종교의 다방면의 역할을 하였다. 사사기는 사사들의 활동기록을 정리하여 놓은 책이다.

II. 저자와 기록년대 (Author and Date Written)

성경 자체에 정확한 언급이 없어 저자와 연대를 알기가 어렵지만 랍비들의 전통인 탈무드에 의하면 사무엘이라고 한다. 저작 연대는 왕정정치 시대이다(주전 1050-1000년).

III. 기록목적 (Purposes of the Writing)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죽음 후로부터 사무엘 시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정치·국방·종교적 문제를 역사적으로 다룬 내용이다. 그 시대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하여 민족들의 고난과 고통에서 구원하시는 섭리를 기록하였다. 즉 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통치하심을 기록하였고 ② 실패하는 원인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키는 방법을 기록하고 ③ 회개시키려는 하나님의 선한 징벌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기록하였다. 결론적으로 배교의 고통과 회개에 따르는 새로운 축복을 기록하여 후세에 전하려고 했던 점이 사사기의 기록목적이다.

IV. 주제 (Main Themes)

외적인 정복은 내적 불완전함으로 말미암아 배교의 수치를 자행하며 실패를 맛보게 된다. 가나안 민족을 몰아내지 못한 것들이 뒷날에 커다란 종교적 악영향을 받게 되며, 유일신(唯一神) 사상에서 다신론(多神論) 사상에 접속되어 혼돈과 마찰을 가져왔다. 그들은 범죄→노예→간구→구원→망각 등 다람쥐 쳇바퀴와 같은 악순환을 같은 습관의 범죄를 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12 사사들을 통하여 때마다 이루시고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난다. 중심사상은 ① 연단을 통한 구원 ② 선택한 백성은 버리지 않으신다 ③ 회개와 사사들을 통하여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 ④ 자기 중심적 삶은 하나님의 의도를 거스린다 ⑤ 무질서의 백성들은 질서로 정리될 때 많은 고통이 뒤 따른다는 것이다.

V. 개요 (Outline)

- 1:1-2:5 가나안 정복과 정착
- 2:6-16:31 사사들의 활동과 업적
 - 2:6-3:6 사사들의 활동 서론
 - 3:7-16:31 사사들의 활동(웃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와 바락,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삼손)
- 17:1-21:35 무질서와 종교적 타락 사건
 - 17:1-18:31 미가의 우상숭배 사건

19:1-30	레위인의 첩 사건
20:1-21:25	베냐민 지파와 다른 열한 지파간의 전쟁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은 냉담으로 시작되었다. 이들은 무관심해지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어 땅을 점령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되었다. 이 일은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곁에서 가시노릇을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으며 여호수아가 예언한 대로 되었다 (수23:11-13). 불신앙은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서 떠나 바알을 섬기는 변절로 이끌어갔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벌주시기 위해서 다른 민족들을 보내셔야 했다. 최종적인 결과는 무정부 상태였다.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21:25). 무법함이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일로 시작되는 법이다.